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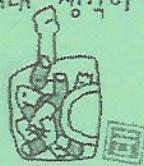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4주일(한가위, 순교자 성월)
제28권 42호(가해) 2008·9·14

[목사]

참 오랫만에 만난 당신은 말수가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들려 준 이야기들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살만하신가 보지요...

예전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구상렬 하상 바오로 · 만화가

달을 닮은 사람들이 달 속에서 웃고 있네요.
티 없는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어머니 같은 달빛
잊을 것은 잊고 순하게 살아가라.
조용히 재촉하는 언니 같은 달빛
슬픈 이들에겐 눈물 어린 위로를 보내는
친구 같은 달빛
하늘도, 땅도, 오늘은 온통
둥근 기도로 출렁이네요.
환한 보름달을 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껏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달빛 인사를 건네는 추석날 밤
그리움이 꽉 차서 자꾸 터질 것만 같네요.
나도 달이 되네요.

◆달빛 인사 / 이해인 수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돋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양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래지오 마리애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종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례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최효선 안젤라, 김태호, 고순이, 김순성 마리아, 방베드로, 김봉태 바오로, 염고도 마리아, 최글라라, 박프란체스코, 이강일 윤일요한, 엄은섭 도로테오
	(생) 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율리아, 방우리 레지나, 조지 가보라, 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생)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 김미성 미리암 장정숙 크리스티나, 임마르코와 사비나 가정, 김병수 요한, 김우용 시몬과 문선 미리암 가정, 최기남 야고보와 옥희 데레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엘(Joel) 2,22-24.26-27

- 화답송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도다.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시고 강복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주 하느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도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셨도다. 세상 모든 끝이 주님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요한묵시록(Revelation) 14,13-16

- 복 음 환호성 ◎알렐루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 음 루카(Luke) 12,15-21

- 영성체송 주님,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땅이 배부르나이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빵을 얻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술을 내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24	229
봉헌	269	256,264
성체	Power of Love	301,309
파견	238	201

18. 치유의 성사 -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 고해성사의 의미와 효과

우리는 흔히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는 등, 법을 어긴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는 하느님과 맺는 친교를 잃는 것이다. 곧 죄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은 채 삶의 기준을 하느님의 뜻과 영원한 생명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눈앞의 이익에 두는 데서 비롯되는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한 사람이 짓는 죄는 그 사람에게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느님, 이웃, 자기 자신과 이루는 관계에 상처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예식이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고해성사에서 받은 보속을 성실히 행함으로써 죄 때문에 받을 별을 면제하여 주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키워 준다.

▶ 죄를 용서하는 권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나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 16,18-19) 하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1-23)고 하시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사도들과 교회에 위임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고해성사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죄의 용서 역시 하느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계속 - CBCK 제공)

감사와 나눔의 한가위

한가위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에 홀로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이 더욱 보고 싶은 날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외로움이 가슴에 파고들어 온몸이 향수로 아파하던 날입니다. 저는 미국 동부에서 공부했는데, 한국과는 지구의 반대편에 위치해 한국보다 약 13시간이 늦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한가위 전날 밤 8시경에 한국의 본가로 국제전화를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 시각이 한가위 오전 9시경이고, 집에서는 차례를 마친 후 가족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울 무렵입니다.

전화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어머니와 먼저 통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전화기를 이어받고, 동생 내외와 막내 동생 내외가 다시 전화기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카들이 그 전화기를 바통으로 이어받아 저에게는 익숙지 않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 줍니다. 그리고 귀에 익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들으면서 통화는 끝납니다. 고국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기숙사의 방에서 나와 이국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달은 이내 보고 싶은 가족들의 얼굴로 차례차례 바뀝니다.

외국에 있다든지, 한국에 있으면서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한가위의 풍경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겨운 감사와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한가위는 그 해에 거두어들인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음식들을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하루를 지냅니다. 한가위에 우리가 맛보는 음식들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된 결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또한 결실을 다른 이들과 풍요롭게 나누는 날입니다.

한가위는 감사의 명절입니다. 한가위에 지내는 차례의 의미는 무엇보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힘들게 수확한 오곡백과는 노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땅과 비와 햇빛이라는 자연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느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는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선조들이 묻힌 산소에 찾아가 성묘를 하며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님과 은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한가위는 감사와 함께 나눔의 명절입니다. 차례상을 물리고 함께 자리한 가족들이 풍성하게 차려진 한가위 음식들을 나눕니다.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떨어져서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담을 나눕니다. 풍요로운 음식이 나누어지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을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한가위가 풍성한 것은 음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는 까닭입니다. 감사와 나눔으로 모두가 하느님을 닮은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는 한가위이기를 기원합니다.

◆김영춘 베드로 신부<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아브라함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래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팅	배재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서용숙 에스텔	박정희 마리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P.V. 4반	제물봉헌자			토련스 서 2/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한가위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오늘 주일(14일)은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으로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서 자신 조상님들과 부모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이 명절 미사를 봉헌합시다. 위령기도와 분향이 있습니다.

◆ 주일학교/한국학교 등록 서두르세요.

- 주일학교 등록비(1년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는 무료(9월8일 이후부터는 \$10씩 추가)
- 등록마감 : 9월21일(주일) *자모회비 : 한 가정당 \$40
- LA교구 요청에따라 liability문제로 미등록 학생은 수업 받을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780-0369 강아네스 교장
- 한국학교 등록비(1학기분) : 첫째아이 \$150, 둘째 \$140, 셋째 \$130, 11월 SAT II 시험 준비학생 \$100(교재비 \$50 별도) ☎ (310)347-8765 이헬레나 교장

◆ 레지오 단원과 협조단원들의 친교모임

- 일 시 : 오늘 주일(14일) 오후 3시 친교장
- 대 상 : 바다의 별, 순교자의 모후, 자비의 어머니 등 3 프레시디움 단원들과 협조단원들

◆ 성모회 9월회의 및 새 회원 모집

- 일 시 : 오늘 주일(14일) 오후 1시 친교장
- 신입회원 대상 : 45~65세 자매님들 ☎오루시아 490-3358

◆ 제12차 홈리스 피플 돋기 행사

- 통비치 무숙자 센터 : 음식봉사와 이발봉사
- 음식봉사자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뜻있는 분들은 오늘 주일(14일) 오후 4시까지 주방으로 모여 주십시오.

◆ 고준희 제임스 추모비 건립 관련 R.P.V. 사의회 공청회

지난 2월24일 P.V. 앞바다에서 친구를 구하고 큰 파도에

◆ 제38회 한국의 날 장터에 '백삼위 음식 부스' 운영

- 일시 : 9월25일(목)~28일(주일) *백삼위 대전회 주관
- 장소 : LA서울국제공원(구 아드모어 공원)
- 목적 : 백삼위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금 마련
- 참가음식 : 메추리구이 외 6종 • 기금 목표액 : \$25,000
- 음식 바자회 티켓 판매 \$10 : 주일(특전)미사 전후
- 각단체 및 교우들의 적극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봉사 일정 : 25일(목)-토런스동/북구역, 26일(금)-하버/카슨·토런스 남구역·원서회, 27일(토)-P.V.구역·배론청년회·원서회, 28일(일)-토런스 서구역·배론청년회·원서회
- 문의 : 대전회 정동호 하상바오로 회장 ☎(310)780-9055

휩쓸려 실종된 고준희 제임스 군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기 위해 현장에 주모비를 세우고자 시의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신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9월16일(화) 오후 7시 Hesse Park 내 커뮤니티 홀(29301 Hawthorne Bl.)

◆ 9월 사목상임위원회를 21일 주일로 앞당깁니다.

9월 넷째 주일(28일)은 순교자 혈양대회와 한국의 날 장터 음식부스 등 행사가 겹치는 관계로 사목상임위원회를 한주 앞당겨 21일 주일 오후 1시 강당에서 갖습니다.

◆ 장례절차에 관한 세미나 10월로 연기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14일(주일) : 성모회가 전신자들에게 한가위 떡을 나누고, 소공동체가 요셉회+안나회 어르신들께 추석상 차려드립니다. 또한 주일학교의 애나, 린다, 엘리스 정 3자매가 한가위를 기리는 고전무용을 펼칩니다.
- 장터 데모 행사(14/21일 주일) : 대전회가 장터 음식부스를 실습하는 친교자리. 메추리 구이, 떡볶기, 파전 등 5 가지 판매. 한접시에 \$5, 메추리구이 3마리 \$10, 음식바자회티켓 \$10.

지난 주 우러들의 정성

교무금	김교복	김기정	김병철	김병학	김선제	김성일	김양금
	김양금	김영경	김옥보	김 육	김원모	김정희	김형순
김택수	김형순	노혜숙	문충한	민소예	박동수	박수익	박인식
	박수익	박인식	박준구	박희자	서홍삼	신경훈	안재만
유희연	안재만	엄영희	오 진	오태환	유인섭	유정복	오태환
	유희연	윤석구	윤선희	이귀분	이근모	이민상	이석제
이석제	이석제	이연행	이용식	이은록	장숙환	정상봉	주대종
	이연행	이용식	이은록	장숙환	정상봉	정상봉	지경수
주대종	주대종	지경수	차봉관	차인수	채양석	최미열	최미열
	지경수	차봉관	차인수	채양석	최미열	최상만	최희태
최상만	최상만	최태훈	최희태	한창주	황철수	황학수	황학수
	최태훈	최희태	한창주	황철수	황학수	황학수	황학수
합계 : \$5,840						합계 : \$3,955	
미사현금 : \$2,862.50				감사현금 : 성낙호, 김옥보			

◆ 백삼위 골프회 9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9월20일(토), 티오프 오전 9시30분
- 장소 : 레이크우드 골프코스
- 문의 : 서성용 베드로 골프회장 ☎ (310)686-3587

◆ 성모회 피정

- 일시 : 10월4일(토), 성모신심 미사 후
- 강의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대상 : 성모회, 자모회, 소공동체, 원서회, 안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 회비 : \$10
- 신청 : 회장 오혜숙 루시아, 행사부장 김정심 크리스티나 ☎ (310)490-9662

남가주 소식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제12회 정기 협회전시

- 일시 : 9월25일(목)까지 전시
- 전시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 #502 LA)
- 백삼위 본당 김윤진 카타리나 자매 등 30명 작가 출품
- 지도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문의 : 회장 김원실 메리디나 ☎ (213)365-8285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동호회 제2회 정기연주회

'유빌라테'는 작년에 결성된 가톨릭 성가를 사랑하는 음악인들의 모임으로 창단연주에 이어 올해 두번째 연주회를 갖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9월26일(금) 오후 7시30분, LA 성 빙센트 성당(621 W. Adams Bl.)
- 연주곡목 : 모차르트의 미사 'Brevis' K.65 외 -
-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 지휘 : 김경숙 클라라

◆ 제 3회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 때, 곳 : 9월28일(주일) 오후 3시30분, LA 대교구 주교좌 대성당(555 W. Temple St. LA)
- 주례 : Gabino Zavala 샌제이브리얼 지역 주교, 남가주 한인사제단 공동 집전
- 주관 : 성 마리아 엘리사벳 성당(롤랜하이츠)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현양미사를 봉헌합니다.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발현 성지 순례

- 출발 : 매월 셋째주 목~일(3박4일)
- 경비 : \$950(LA 출발 기준, 항공료에 따라 변동가능)
- 후원 : 가톨릭신문사, 주관 : 투어월드 ☎ (213)385-0043

이번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9월정기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명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伦斯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배태임 안나 781-9199 9/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정기은 비오 618-9775 9/13(토) 오후 7시
	3	한길선례 스플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472 9/19(금) 오후 8시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伦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데레사 618-8499 9/5(금) 할리웃보울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박재철 요왕 530-3699 9/21(일) 오후 5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9/15(월) 오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伦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오창애 안나 326-1519 9/19(금) 오후 7시45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이경수 헬레나 530-0357 9/9(화) 10시30분
	3	강은진 켐파 214-2290	강은진 켐파 214-2290 9/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伦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이용식 베드로 516-0818 9/12(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伦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윤리아 365-4721	정정숙 윤리아 365-472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최기남 야고보 891-1527 9/13(토) 오후 7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진수 에우제비오 377-0345 9/12(금) 오후 7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퍼카엘라 265-0856	김종문 아놀드 377-0450 9/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 백삼위 주일학교 / 한국학교 1학기 일정표 ●
(2008~2009 year)

Mon.	학교	1st Sun.		2nd Sun.		3rd Sun.		4th Sun.		5th Sun. / ☆	
08년 9월	Date	7		14		21		28			
	주일학교	Classes Begin		Picture Day		Picture Day		Class			
	한국학교	학기 시작		추석 송편 만들기		수업		수업			
10월	Date	5		12 Columbus Day	19			26		☆10~11th(Fr~Sat)	
	주일학교	Open House		No Class	Pray with Rosary		Class		Lock-in 7th~12th grade		
	한국학교	수업		휴강	수업		수업				
11월	Date	2		9		16		23		30	Thanksgiving
	주일학교	Start 'can food drive'		Class		Class		Class		Finish to collect No Class	
	한국학교	수업		수업	단어 경시대회		수업		휴강		
12월	Date	7		14		21		28		☆20th(Sat)	
	주일학교	Class		Class	Christmas Vacation		Christmas Vacation		Christmas Program		
	한국학교	수업		수업	성탄방학		성탄방학				
09년 1월	Date	4		11		18 M.L. King Jr.	25				
	주일학교	Classes resume		Class	No Class		Class				
	한국학교	개학		동시 / 동화 낭송대회	휴강		1학기 종강 성적표 배부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일학교 Special Program

◆ 백삼위 주일학교 교장 강혜원 아네스 / 한국학교 교장 이헬레나